

방미·일 수행 경제계 인사 초청 오찬

해외 순방 중 경제계의 도움과 좋은 평가 덕에 감사 드립니다.

좁은 자리라 앉아서 할 수도 있으나, 저 끝까지 안 보여서 일어났습니다. 우선 참석해준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방미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경제적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많이 해줬고, 6박7일 동안 분위기 잡아줘서 어디 가면 의견을 표현하기 좋았고, 이해를 돈독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경제영역에서 좋은 평가받고 있는 것은 다 여러분 도움의 결과입니다.

그 이후 돌아와서 성과를 어찌 발전시킬까 걱정하면서 있는데, 좋은 투자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자신감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감 해소하고, 뭔가 가능하다고 시작할 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분이 식기 전에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요일 점심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일본 방문 계획 때문에 그 뒤로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갔다 와서 하자니 아쉬워서 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 바꾼다 해서 비서실에서 진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국민 걱정을 덜자고 하는 것이니 반갑게 받아주십시오.

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 집이 삼계탕 맛은 괜찮습니다.

(오른 쪽 옆에 앉은 이건희 회장과 약간 틈이 있자 의전쪽 불러) 회장님과 자리를 가깝게 해주십시오. 사진에 서먹하게 나면 안 되잖습니까.(의전 쪽 행정관이 수저 그릇 등 대통령 쪽으로 바짝 옮기고, 이건희 회장도 더 가깝게 앉음) 사진이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진이 나가면 뭔가 잘되겠구나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것입니다.